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일 시	의원명	질 문 내 용	답 변 자	비 고
계	8명	10건		
9. 21 (목) 10:00	강현삼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공무원 총수 운영계획에 대하여?(세부질문 4가지)	시 장	
		시 균형발전에 따른 시장의 견해는? (세부질문 4가지)	관광건설국장	
	성명중	청전동 샛터~고암동 의림지간 도로주변 개발에 대하여?(세부질문 3가지)	도시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9. 22 (금) 10:00	박기석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세부질문 5가지)	복지사업과장	
	조덕희	자양영당 관리실태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질문 4가지)	문화관광과장	
	김명섭	제천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세부질문 2가지)	부 시 장	
9. 25 (월) 10:00	김봉수	하소천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세부질문1가지)	건설과장	
	양순경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세부질문 3가지)	시 장	
	박성하	약초시장 활성화대책과 한방특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세부질문 3가지)	부 시 장	
		제천시 분뇨(정화조 포함)처리에 대하여? (세부질문 5가지)	시 장	

답 변 서

☐ 질문의원명 : 김 봉 수 의원(자치행정위원회)

☐ 답 변 자 : 건설과장 이 종 식

☐ 제 목 : 하소천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 질문요지

- 하소천이 제천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의 청계천처럼 변화시킬 계획은?

☐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해주고 계시는 최종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봉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소천 명소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하소천의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연장은 6.0km, 유역면적은 21.25km²이고 대부분의 하폭이 40m정도로 협소하고 고수부지가 적으며,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 도달시간이 짧고, 하천유역의 시가지 확산으로 기 형성된 취락지 및 도시계획도로 등이 하소천과 접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하소천 명소화 사업의 추진에 많은 제한적 요소가 따르고 있습니다.

☐ 지방화시대의 정책방향이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질 개선 등 질적 균형으로 정책의 중심이 변화되고

특히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과 더불어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한 현대인의 웰빙욕구를 충족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 하천환경의 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수 및 치수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본래 자연하천의 모습을 갈구하는 시민적, 사회적 욕구가 절실해 가고 있습니다.

□ 하소천 명소화 사업으로 제천시민의 휴식처가 되기 위하여는 **세가지의 추진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첫째는 깨끗하고 맑은물이 흐르는 하천조성이 필요합니다. 도시화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방지가 문제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원확보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청계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실대교 부근에서 취수하여 소독과 정수를 거쳐 2급수를 유지하여 17km의 송수관을 이용 청계천으로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소천도 평균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친수활동을 위한 수질은 갖추고 있으나 우기시를 제외하고는 유량의 부족으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소천의 친수활동을 위하여 최소 수량이 1일 35천톤 정도 소요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은 BOD를 기준으로 평균 3급수 수준이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이 되면 평균 2급수 수질정도가 예상

되므로 기존수와 혼합하면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을 하소천 상류까지 송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므로 환경부(하수처리수 재이용)국비지원 요청을 통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는 하천 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한 기본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하소천을 가꾸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고자 2001년도 용두교 부근 6억원 2003년도에 하소교 하류에 4억원을 투자하여 식생 호안, 어도 설치, 징검 다리, 수생식물등을 식재하고, 2004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보도교를 아취형 목교로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하천 만들기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에 의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내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는 하소천의 명소화 사업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계천과 양재천등의 친환경 하천정비 명소화 사업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바 우리시하고는 여건이 맞지 않지만 하소천 명소화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행히도 2005년 11월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표준화(장평천수계)학술용역을 충북도에서 발주하여 현재 충북개발연구

원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시 관내 장평천, 고암천, 하소천, 미당천을 모델로 하여 연구 추진하게 되어 금년말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하소천 정비계획 방안을 선정·수립하여, 향후 계획성 있는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예산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하천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라는 신념으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시민들과 관,학계가 협력하여 정비를 시행할 때 우리가 희망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하천조성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소천 명소화 사업을 다각적인 검토로 심도 있게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소천 명소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양 순 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시 장 엄 태 영
제 목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요지

- 독거노인들을 위한 제천시의 지원정책은?
-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대책은?
-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성금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우리 시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노인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양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독거노인들을 위한 제천시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우리 시 노인인구 현황은 2005년 12월말 기준 제천시 전체인구 138,20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6,554명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저소득 독거노인은 1,147명으로 노인인구대비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 경로연금 : 1,299명/657,504천원
- 교통수당 : 3,592명/1,336,920천원
-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324천원이상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 8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매월 30,000원씩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혼자 사시며 식사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 식사배달 : 118명/67,968천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 160명/35,64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기타 지원으로

- 보청기 지원 : 5명/5,000천원
- 주간보호서비스 : 9명/60,500천원
- 가정봉사원파견센터서비스 : 70명/95,25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상황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제천 소방서와 협조하여 무선페이징을 중앙동 152대, 화산동 88대, 봉양읍 36대 등 267대를 설치 운영중이며, 660여명의 독거노인이 종합사회복지관, 제천시노인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 등 각 복지관을 통해 안부전화, 반찬배달, 가사서비스, 말벗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지난 9월 7일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를 명락노인복지관에 개소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 단독가구가 급증하고,
- 또한 노인들은 주로 자가 주택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는 생활형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 주택에 대한 가장 주된 불만 이유는 “주택이 낡아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시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및 노인 주거 개선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금년도에 사업비를 140,000천원을 확보하여 도배장판 65가구, 벽체 6가구, 보일러 8가구, 샷시 5가구, 점검 10가구, 주방 6가구, 지붕 21가구, 화장실 5가구 등 총 126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호응도가 매우 좋아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종합복지관과 명락노인복지관에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2개팀을 운영하여

- 금년도에는 96명이 참여하여 19가구의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주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12가구 저소득 노인에게 가구당 2,000천원씩을 지원하여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적십자 봉사단, 라이온스클럽 등 단체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적극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성금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업체로부터 총150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대지에 총 300세대의 독거노인용 주택을 건립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차적으로 서울·경기 지역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한 지자체는 용인시, 화성시, 강화읍, 서울 중랑구가 대지 제공의사를 제시하여
- 1차적으로 서울 중랑구와 경기도 용인시에 추진기로 결정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 우리시도 용인시 및 중랑구를 벤치마킹하고 건설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양순경 의원님의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박 성 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부시장 이 중 갑
제 목	약초시장 활성화대책과 한방특화의 진행상황?

질문요지

1. 제천약초의 생산기반구축 사업계획 및 한방특화사업의 추진계획은?
2. 제천약초경매장 추진경위, 시설현황, 약초시장경매장 운영현황과
경매장 허가전망 문제점 및 대책은 ?
3. 약초시장의 활성화대책 및 약초건강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답변내용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부지런하신 현장확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주시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초시장 활성화대책과 한방특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약초의 생산기반구축 사업계획 및 한방특화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지역의 약초와 한방여건을 살펴보면, 제천은 평균해발 278M로 보통 300~400M의 준 고랭지에 약초를 재배함으로써 높은 기온 차와 석회암지대 사질토양으로 최적의 환경조건이 구비되어 약초의 저장성이 강하고 약효가 뛰어나 조선시대부터 명성이 알려져 1941년 이후 3개 국철이 개통되면서 전성기를 맞아 전국3대 약령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93년에는 시내에 흩어졌던 약초상가를 현재의 약초시장으로 이전하여 집단화하였고, 읍 면지역에는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약초시장 74개 점포, 약초영농조합 10개소, 작목반 6개소, 약초재배 1,106농가 539ha, 도매업 8개업소, 약업사 16개소, 제약업체11개소, 한방 식품22개소, 화장품 3개업체, 세명대한의대, 한방병원, 한의학연구소, 전통의약산업센터(산자부지원)등 산·학·연·관 한방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최적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 26일에는 이와 같이 우수한 한방산업인프라를 기반으로 약초시장 및 약초재배단지 5개소 약30만평에 대하여 정부의 『제천 약초웰빙특구』로 지정받아 약초시장 현대화사업과 한약재GAP사업(우수농산물관리제도=친환경재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질의하신 약초생산기반구축 사업계획과 한방특화 사업 추진계획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시는 우수한 약초생산기반은 있었으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 행정의 일관성과 집중적인 투자가 미흡하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민선3기 한방타운조성을 시장공약사업으로 정하면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수립, 『제천약초웰빙특구』 지정과 더불어 2010년을 목표년도로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 종합구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9개 부문에 32개 과제사업으로 총 사업비 4,579억원(국비631, 지방비856, 민자3,092억원)을 투자하여 최종목표 년도인2010년에는 한방엑스포를 개최하여 명실상부 국제건강 도시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사업중에서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은 크게 4가지 사업에 총2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산자부 한방산업육성 RIS사업(39억원)확정, 복지부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BTL사업(100억원)선정, 농림부 송학농촌 종합개발사업 한방부문(30억원)확정, 행자부 봉양소도읍가꾸기 한방부문(41억원)반영 등 굵직한 정부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금년은 과학기술부의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250억원)이 기획예산처의 사업 확정을 거쳐 국회보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무난히 사업선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0년 한방엑스포 개최를 위한 메인 인프라시설로 건립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방특화도시를 비전사업으로 선택한 사유는 과거 제천은 태백권의 배후도시로 석탄, 시멘트의 호황기에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관련산업의 사양화로 침체기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방특화산업은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새로운 대체 산업으로 바이오밸리를 축으로 투자유치와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차별화 전략이 제천의 미래 동력산업이 될 것입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한방 특화도시 2010프로젝트 32개 과제사업 홍보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제천약초경매장 추진경위, 시설현황, 약초시장 경매장 운영 현황과 경매장 허가전망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답변을 드라기에 앞서 우리시에서 약초시장에 집중투자하는 이유와 한방특화 도시로 가기위한 기본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정부의 기본논리는 『선택과 집중』이며,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때 중앙정부에서는 선택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지원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큰 흐름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는 『약초, 사과』를 중심으로 특화할 때 지역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약초산업을 특화시키기 위해 침체된 약초시장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5년에 약초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① 약초시장환경개선사업(8억원) ② 약초시장 특화사업(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특화도시로 가기위한 우리시 기본전략을 말씀드리면 ① 한방클러스터 구축 (한방지원센터, 산학연관 클러스터) ② 고품질한약재 생산·유통 (약초재배시범단지 조성, 유통현대화시설) ③ 한방신약, 화장품개발(전통의약산업단지, 한방산업단지) ④ 우수제품생산상품화 수출(한방산업단지 바이오밸리)을 완료한 후 제1단계(약초웰빙특구), 제2단계(에코세라피건강특구)로 완성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약초시장 경매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천약초경매장 추진 경위입니다.

제천약초시장 경매장시설사업은 당초에는 고려복식전시관 조성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에 확정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당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고려복식전시관에서 천연식물 무공해농약비료제조시설로 1차 사업변경신청을 '04. 01. 20일 행자부에 요청하여 '04. 04. 14일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의회승인을 받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대체사업으로 양채·양파저장고 신축 사업을 발굴하였지만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시의회내부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투자통상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4년 12월31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투자통상실에서는 정부의 제천한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세명대 한의학연구소 기본용역결과에 근거하고 당시 제천약초시장번영회장(장용상)과 협의하여 제천약초시장에 경매장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여 행정자치부에 '04. 12. 23일에 2차 사업변경신청을 요청하여 행자부승인을 '04. 12. 30일에 가까스로 득하고 '04. 12. 31일에 경매장설치사업 보조금교부를 결정하게 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약초도매시장의 시설기준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8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기준에 따른 제천약초시장의 시설현황은 “대지면적(4,393㎡), 건물(729㎡), 경매장(612㎡), 주차장(336㎡), 오물처리장(30㎡), 위생시설(30㎡), 사무실(32㎡), 출하상담실(54㎡)” 로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약초시장경매장 운영현황과 경매장허가전망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초시장 경매장 운영현황입니다.

경매장시설사업이 완료된 '05. 10. 7일 제천약초도매시장 개설을 위하여 (주)제천약초시장 번영회장이 운영관리계획과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충북도를 2회에 걸쳐 방문 제천약초도매시장 개설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도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제천약초시장인 화산동 987번지가 50명의 공동지분으로 등기되어 토지 소유자 전원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였으나, 사업당시부터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장 사업에 미온적이던 극소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확보가 어려워,

'05. 12. 20일 민원서류를 취하하고, 신임 상인회장의 협조를 얻어 도매 시장을 개설 할 계획이었으나 상인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경매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산 약초 120품목을 전시하고 있으며 현대식 쇼핑과 인터넷 판매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장 허가 전망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장허가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약초도매시장개설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문개정 '00.6.23 농림부령 136호)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약초시장 상인대다수가 경매장 운영을 찬성하고 있으므로 시장상인간의 갈등이 해결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매장허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당시 법인격이 없는 제천약초시장번영회에 법인격을 갖출 것을 요청하였고, 제천약초시장번영회에서는 경매장시설 설치 후 경매장운영을 위하여 영리행위가 가능한 (주)제천약초시장번영회를 (시장상인 74명중 68명이 참여)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05년 10월말 경매장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매시장개설신청서를 충북도에 접수(‘05. 10. 7) 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하여 개설신청서를 취하(‘05. 12. 20)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이 시작되면서 상인회의 임원진이 교체되고 시장의 갈등은 증폭되었으며 그당시부터 우리시에서는 전·현직 상인회장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제천약초시장에서는 현 상인회장이 전임 상인회장을 상대로 하여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의 보조금 사업집행에 대하여 공사부실과 사업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자회견(‘06.5.16), 검찰 진정(‘06.6.19), 감사원 진정(‘06.8.7), 감사원 재 진정(‘06.9.6)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다수회원이 상인회를 탈퇴하여 현재는 약초시장상인회가 양분되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감사원 진정 건은 “**혐의없음**”으로 2006년 9월15일 최종 판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민원발생으로 약초시장이 양분되어 상인간 갈등이 있지만, 진정건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므로 도매시장개설에 대하여는 갈등당사자가 그 유용성을

인정하여, 경매장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경매장운영 주체인 (주)제천약초시장번영회(대표이사:장용상)에게는 도매시장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토지소유자에게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을 설득할 예정이며, 제천약초시장을 대표하는 제천약초시장상인회(회장:신영배)에게는 전체 약초시장상인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 할 것을 요청하여 제천약초도매시장이 조기 개설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째, 약초시장의 활성화대책 및 약초건강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약초시장 활성화 대책은 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방특화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약초시장 상인간의 화합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은 약초건강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건강축제는 2004년도부터 의병제와 병행 추진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도는 전시행사 위주의 행사로서 약초전시, 약초사진전, 한방음식전시회 등과 약초를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행사를 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이 5천만원으로 의병제의 부대행사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떨어져 축제에 참여하는 외지인이 약초를 구입하는 사례가 적고 특히, 축제 개최시기가 일부약초(황기, 천궁, 당귀 등) 수확기 이전에 개최되어 약초농가의 참여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 따라서, 약초건강축제의 개선방안으로

축제예산의 현실에 맞는 편성과 함께 축제개최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약효가 입증될 수 있는 재배법 연구, 농가기술 투입, 친환경 유기농 약초생산, 지역특성을 살린 녹차식물의 확대 재배 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약초를 생산하여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추어 타지역에서 축제기간에 우리시를 찾을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약초건강축제는 2010년도 국제한방엑스포 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자연(약초), 인간, 문화와 건강한 소비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억원의 사업비로 10.12 ~10.15일까지 4일간 의병제 행사와 동시에 개최하면서 체험행사 27종, 전시행사11종, 판매행사 19개단체등 57종의 행사를 개최하여 축제가 제천의 산업으로 발전될수 있는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강좌를 개설하여 유명한 한의사등 저명한 인사를 초빙 학습과 건강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박 성 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시 장 엄 태 영
제 목	제천시 분뇨(정화조포함)처리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사 허가현황 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 위생사 운영 및 수거관련 민원발생 현황 ○ 위생사 지도점검 처리결과 ○ 위생처리장 운영현황 ○ 분뇨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p><u>답변내용</u></p> <p>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종섭 제천시의회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p> <p>박성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분뇨처리(정화조 포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첫 번째 위생사 허가현황 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수집운반업 2개 업체와 정화조 청소업 2개 업체를 허가해 주었습니다.</p> <p>제천위생사(현 대표 : 김병근)는 1989. 03. 26일 분뇨등 수집운반업과</p>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득하였고 장비는 흡인식차량 3대(용량 합계 : 20.5톤)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인력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위생사(현 대표 : 남기문)는 1987. 05. 15일 분뇨등 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득하였고 장비는 흡인식차량 4대(용량 합계 : 20.2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사 운영 및 수거관련 민원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구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조건으로 영업구역을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제천위생사의 영업구역은 배우장여관-서울병원-중앙시장-농고-신백동 도로를 경계로 하여 교동, 중앙동일부, 남천동일부, 명서동 일부, 의림동, 용두동일부, 청전동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면지역은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송학면 지역의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제일위생사는 배우장여관-서울병원-중앙시장-농고-신백동 도로를 경계로 하여 중앙동일부, 남천동일부, 서부동일부, 용두동일부, 영천동, 화산동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면지역은 봉양읍,

금성면,백운면 지역의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관련 민원발생 현황은 최근 3년간의 누적 관리한 결과 2004년도에 제일위생사에서 수수료 과다징수 1건이 지적되어 10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경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생사 지도점검결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등 관련영업 지도점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583호<2004.09.01>)에 의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년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등 필요시 점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점검결과 정기점검에서는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2004년도에 수수료과다징수 민원으로 인한 수시 점검시 1개 업체가 지적되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분뇨처리장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98kl로서 1차 처리(협잡물제거)만하여 제천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사에서 분뇨처리장에 반입하는 분뇨운반량은 1일 평균 80kl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분뇨등수집운반업 2개업체와 정화조청소업 2개업체에서 분뇨수거에 필요한 인력및 장비부족으로 분뇨수거지연등 민원발생의 문제점은 없었으나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분뇨처리량이 증가할 경우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분뇨등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높이고 분뇨수거 및 기타민원으로 인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